

추락하는 전남 산지 쌀값...나락에 빠진 농심

18만원대로 전국 평균 20만원대 밀되고 정부 가격 안정 약속 안 지켜져 생산비는 크게 올라 '겹시름' ... 일부 농민들 울며겨자먹기식 투매까지

정부가 올해 수확기 쌀값을 80kg당 20만원으로 유지하는 수급 안정 대책을 내놨지만, 전남의 쌀 산지에서는 18만원선까지 주저앉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지역 수확기 쌀 가격이 급락세여서 일부 농민들은 투매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13일 영암 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올해 영암의 산지 쌀 도매가는 쌀 80kg에 18만 8000원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달 평균 산지 쌀값(80kg)은 21만 7552원이었다. 한 달이 지난 이달 5일에는 20만 1384원으로 하락했다. 한달 새 1만 6000원 가량(7.5%)이 하락한 것이다.

정부는 불안정 정책에 따라 20만원선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전남의 쌀 산지에서는 20만원대가 깨지고 18만원선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지역별 편차도 큰 탓에 전남 일부 지역의 실제 거래가격은 더 낮았다. 80kg 기준으로 곡성지역은 20만원이지만 해남의 경우 산지 쌀 값이 18만 8000원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강진군은 18만 8000원선이지만 영암은 18만까지 떨어졌다는 것이 농민들의 설명이다.

수확철인 10월부터 산지 쌀 가격이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산지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3월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20만원선을 약속해놓

고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급기야 일부 농민들은 쌀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우려해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투매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투매까지 이뤄지자 전남 일부 농협의 쌀창고가 가득차 저장할 공간조차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의 발표와 실제 전남 지역 쌀가격의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 양유복(74) 영암군 도농협 전 조합장은 지역별 쌀 가격 편차를 이유로 꼽았다.

양씨는 "경기, 충청미의 경우 현재 20만원에 웃도는 쌀 값이 형성돼 있지만 전남미의 경우 18만원 선에 그치고 있다"며 "정부나 통계청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평균치를 발표하다보니 80kg 당 20만원 선을 지키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었지만, 전남 지역에서만큼 명백히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목표가격 이하로 거래가 되는 경우 연말에 농민에게 보전금을 주는 쌀 직불금으로 20만원선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농민들은 대규모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과거 4~5년전에는 '쌀소득보조직불제'로 차액의 85%까지 보전이 가능했지만 1ha(3025평) 당 일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인 '공익형직불금'으로 변경돼 소규모 농민들은 차액을 보전하는데 턱없이 모자라 20만원선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산지 농민들은 수확기가 지났음에도 지속적으로



영암군 군서면 농민이 지난 10일 오후 올해 추수한 벼를 보관한 창고에서 쌀 값 폭락에 막막해 하고 있다.

쌀 값이 하락하는 이유로 벼를 사야 할 소비자인 통합RPC(미곡종합처리장) 등이 매입에 나서지 않으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정부가 대량으로 구매한 쌀이 넘쳐나

올해 구매까지 감소한 것도 한 원인으로 꼽고 있다.

전남지역에서 쌀 값 폭락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뚜렷한 대책방안이 없다보니 산지 농가에서는 '올

며 저자먹기' 식으로 더 낮은 가격이라도 팔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영암군 군서면에서 15년째 13만2000㎡(4만평) 규모로 벼 농사를 짓고 있는 김봉식(49)씨는 "벼·쌀 가격이 폭락했고 앞으로 떨어질 것이 눈에 훤히 하더니 원래는 내년을 대비할 벼까지 사야 할 도정공장에서조차 당장 필요한 양만큼 소량만 구입하고 손을 놓은 상태"라며 "고물가로 생산비가 대폭 오른 현재 상황에서 쌀 값으로 20만원을 받더라도 생산비와 큰 차이가 없다. 최소한 가격은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호소했다. 이어 "벼를 아무도 안 사려고 하다보니 현지 농가는 불안한 마음에 투매를 하게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정책적인 확신을 주지 않는 정부를 지적했다.

해남에서 9만9000㎡(3만평) 규모의 벼 농사를 짓고 있는 정거섭(59)씨는 "쌀 값 20만원 선을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연제는 공매를 풀 수 있다는 이미지를 주면서 지금 당장 벼를 사려는 사람들이 없어졌다"며 "해남지역 간척지 농가의 경우 올해 폭우와 폭염으로 눈에 염분이 올라와 수확량이 30% 감소한 상황에서 벼를 사려는 사람도 없고 가격은 폭락하다 보니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뒤늦은 대책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지난 8일 정부에서 매일 쌀의 공매를 중지하고, 공공비축미 용도의 벼 12만 t을 시중에 풀지 않겠다는 등 쌀 값 안정 방안을 제시했지만 쌀 값 하락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전남지역에서 벼·쌀 가격이 폭락에도 올 해 유류비, 인건비, 자재비 등 생산비는 오히려 더 올라 농민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다.

/영암 글·사진·장윤영 기자 zzang@

인면수심 성범죄 판결 2제

갈 데 없어 집에 머물게 해줬더니... 직장동료 딸 간음하려는 40대 구속

호의로 집에 머물게 해준 직장동료의 딸을 간음하려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영하)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5년간 A씨의 신상을 공개·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5년의 보호관찰도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에 있는 한 주거지에서 잠자던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아버지 C씨는 직장 동료인 A씨가 머물 곳 없이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전 A씨는 피해자 집에서 C씨, B씨, B씨의 동생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정께 술자리가 끝나고 B씨의 방에 들어가 성폭행하려 했으나 B씨 동생이 방문을 열어 범행을 이루지 못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성적충동을 행동으로 옮기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A씨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지적장애 여성 보호는 못할 망정... 성추행한 장애인콜택시 기사 집유

보호해야할 지적장애인을 성추행한 50대 장애인콜택시 기사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4년간 아동·청소년 등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일명 장애인 콜택시) 기사인 A씨는 지난 3월 지적장애 1급인 20대 여성 B씨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광주시 북구의 한 빌딩 앞에서 B씨가 택시에 타자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뒷좌석에 탄 B씨에게 손을 뻗어 신체를 만지다가 주수석에 옮겨 타게 하고 지속적으로 신체를 접촉하고 추행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취약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분 안에 금은방 튄다" 사전모의한 10대들

인터넷 도박 빚 갚으려고 범행...5500만원 상당 귀금속 훔쳐

광주지법, 2명에 징역형 선고

'두꺼운 금은방 우리를 깨기 위해서는 모서리를 칠 것, 2분이 지나면 보안업체가 출동하니 그안에 범행을 마무리 할 것, 돈이 되는 순금 목걸이 위주로 훔칠 것.'

금은방을 털기 위해 10대들이 사전 모의한 내용이다.

A(19)·B(18)군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B군은 집에서 나와 A군의 집에서 함께 지냈다. B군은 친구들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빚이 생겼다.

빚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던 A군과 B군은 지난 8월 24일 친구들과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털어 돈을 마련하기로 모의했다. 금품을 훔쳐오면 전당포를 통해 현금화한다는 것이다.

A군은 B군에게 현금 8만원을 주면서 유리창을 깨뜨릴 망치와 장갑, 귀금속을 담을 가방 등을 준비시켰다.

다음날인 25일 새벽 1시50분께 A군은 광주시 동구에 있는 금은방에서 범행을 실행해 진열대에 있는 시가 5500만원 상당의 18K 팔찌와 금목걸이 등 26점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B군은 범행을 돕거나 망을 보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도주했지만 결국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광현)은 특수 절도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1년을, B군(18)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각각의 역할 분담을 정한 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사안이 중하고,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면서 "A군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대림인드스트리에 법인설립
- 2011 수출박람회,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요별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형 모범기업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리인드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